

## 오늘은 오리고기 먹는 날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오리데이(5월 2일)를 앞두고 5월 1일 무안 하나로클럽 남약점에서 오리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를 열었다. 매년 5월 2일은 오리의 발음과 비슷해 오리데이로 지정해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 광주일보 [2014. 05. 02]

## 개한테 오리탕 빼앗긴 우현, 멘붕



우현이 개에게 오리탕을 빼앗겨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5월 1일 방송된 SBS '자기야-백년손님'에

서는 배우 우현, 의사 남재현, 아나운서 김일중의 1박2일 처가살이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우현은 장모와의 아침식사부터 또 다시 난관을 맞고 말았다. 장모는 그를 위해 정성들여 가자미 내장이 들어간 썩애탕을 끓였지만 '초딩입맛'의 소유자인 우현이 이를 곱게 먹을 리 없었던 것. 이에 썩애탕을 뒤적거리기만 하던 우현은 장모에게 "어제 오리탕 남은 거 없어요?"라고 물었다. 이는 매번 장모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던 우현이 아예 자신이 좋아하는 오리탕을 사와 전날 먹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장모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거 풍산이 줬다"는 것. 풍산이는 장모가 키우는 개의 이름이었다. 놀란 우현은 "오리탕을 개를 줬다고요?", "정말 개한테 다 줬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좋아하는 오리탕을 개한테 빼앗기고만 것. 이에 멘붕이 온 듯 황당해 하던 우현의 오리탕 타령이 계속되자 장모는 "없는 걸 계속 얘기하면 내가 미안해지잖아"라고 욕하며 우현을 진정시켜야 했다.

▶ 리뷰스타 노선미 기자 [2014. 05. 02]

## AI 후폭풍 오리값 꺾춤... 판매업체 타격

인천지역 오리 판매 업체들이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에 납품 가격까지 올라 울상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오리 가격이 한 달 만에 27%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5월 6일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오리(생체·3kg) 도매가

격은 9500원으로 전월에 비해 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 AI로 살처분된 오리가 많아 공급량이 대폭 줄어 가격이 올랐다. 실제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657만 마리로 전 분기보다 40% 감소했고, 작년 동기에 비해 41% 줄어 들었다. 지난 1월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오리 수는 2월 말을 기준으로 231만2000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내 오리 취급 업체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은 오리 구매를 꺼리고 있고, 관련 음식점들은 납품 가격은 오르는데 경기 불황으로 음식값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주부 권수현(43)씨는 “AI로 인해 오리 등의 소비를 피하다가 최근 훈제 오리를 사려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놀랐다”며 “오리 가격이 비싸다보니 닭이나 삼겹살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한 오리음식점 주인 김모(45)씨는 “3월 들어 거래하던 납품 업체에서 제품가격을 20% 정도 올렸다”며 “올해 초 AI가 발생해 손님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어 식당 운영하는 게 힘들다”고 전했다.

반면, 지난 연휴 대형 유통업체는 오리 가격을 대폭 낮춘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를 마련하는 등 고객몰이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오리데이’인 지난 5월 2일에 맞춰 5월 1~2일 롯데, KB국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훈제오리 전 품목을 50% 할인 판매했다. 행사 물량도 평소보다 대폭 많은 총 5만 마리를 준비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오리 데이 마케팅’ 행사 기간인 5월 1일부터 8일까지 오리 매출은 2주 전보다 305%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매출의 절반 가량이 첫째 주에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를 놓고 지역 오리 판

매 업체들에서는 대형마트가 오리를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평의 한 전통시장 상인은 “말이 좋아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지 대량으로 오리를 구입해 단가를 낮추고 시중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손님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오리 사면서 다른 제품도 사라고 유도하는 것인데, 납품 단가에 민감한 영세 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 인천일보 김원진 기자 [2014. 05. 07]

## 닭 · 오리 도축장 정부검사제 7월 실시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해 7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닭 · 오리 도축장에 대해 시 · 도 공무원(수의사)이 위생을 책임지는 ‘정부검사제’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30일 공포했다. 정부검사제는 7월 1일부터 도내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익산과 정읍의 하림, 군산의 동우, 부안 참프레 등 4개소가 우선적으로 도축검사를 받게 된다.

▶ 전북일보 [2014. 05. 07]

## 오리 보상기준 및 생계안정자금 현실화 요구



▲ 지난 4월 국회본청에서 열린 AI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오리협회 광주·전남 지회 마광하 지회장(사진 가운데)등이 증언에 나섰다.



▲ 증언대회에 참석한 정기현 오리협회 충북지회장

국회본청에서 지난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김춘진 국회의원) 주최로 3차 AI대책특위 회의가 「AI방역 및 살처분 피해자 증언대회」로 열렸다. 이날 AI로 큰 피해를 입은 오리농가를 대표해 나주의 조규호, 전영옥씨가 AI 피해를 증언했다.

조규호씨는 지난 1월 10일 오리 2만수를 입식했는데 근처에서 끊임없이 AI가 발생해 4차례 이동제한 조치를 당했고, 출하일령이 초과된 상황에서 인접농가에서 AI가 확진돼 64일령에 살처분 했다고

전했다. 42일령으로 보상상한선이 정해져 22일 동안 추가로 들어간 사료비 등 6,000만원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고 하소연 했다.

전영옥 씨는 1월 21일 1만수 입식후 2차례의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일령이 지난 후에 농장에 AI가 발생해 53일령에 오리를 살처분했다. 전씨는 오리 이동제한 조치가 AI를 키워온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책을 요구했다.

이들과 함께 올라온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 지회장, 정기현 오리협회 충북지회장도 오리의 피해가 큰 금번 AI의 상황을 설명하고 AI로 직격탄을 맞은 오리 최대산지인 나주·영암 지역과 충북 음성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회의에 앞서 마광하 지회장과 정기현 지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실을 방문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현대축산뉴스 [2014. 05. 08]

## 오리값 상승세 내달 꺾일 듯

AI의 영향으로 오리 공급물량이 줄면서 오리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그 효과가 이달 말까지 이어져 생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달 중 평균 9500~10000원의 가격이 유지되다가 6월 들어서면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에 따르면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절반가까이 줄어 657만 마리로

집게 됐다. 종오리, 육용오리 등 전체 오리 사육마릿수가 줄었다. 종오리 사육마릿수는 69만 마리,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588만 마리로 각각 40% 이상 감소했다.

지금까지 AI 발생으로 매몰 처분된 오리 마릿수는 300만 마리에 달하며 이중 종오리가 51만 마리, 육용오리가 249만 마리다. 때문에 생산물량이 줄어 3월부터 오리 생체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3월 오리 생체가격은 7339원으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월은 9000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보다 46% 증가한 셈이다. 이 가격 지지효과는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경연은 이달말 최고가인 평균 9500~10000원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6~7월 들어 생산량이 회복되는 한편 수요는 전년보다 약세가 전망되면서 생체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어 7500~8000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 축산경제 [2014. 05. 09]

## 오리데이 즈음 하여

5월 2일은 오리데이다. 이즈음 오리업계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더욱 늘리기 위해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는 AI가 장기화된 데다가 황금연휴마저 끼어 어느 해보다도 조용히 지나갔다.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던 AI가 4월 들어 잠잠해 종식을 기대했지만 최근 또 다시 진천에서 재발해 긴장을

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업계 전체가 슬렁이고 있다. 특히나 상징적으로 농협중앙회와 한국오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오리데이 행사도 열리지 못하면서 스치듯 지나치게 된 것이다.

오리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인 웰빙 기조 속에 고성장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생산성 향상, 종축산업의 발전, 각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녹록치가 않다. 오리 산업은 지난해부터 불황의 연속이었다. 지난 몇 년간 오리 산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훈제오리 시장이 한계에 부딪쳤으며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참 성장가도를 달려 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불황에 그동안 오리 산업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등으로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획기적인 전환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저성장시대에 요구되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경영, 과거 훈제와 같이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보다 적극적 소비홍보, 새로운 시장개척, 업계의 인식 변화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오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요창출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오리 산업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오리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축산경제 이혜진 기자 [2014. 05. 09]

### 까치울 먹거리촌 오리전문 음식문화특화거리

오정구가 작동에 위치한 역곡로 ‘까치울 먹거리촌’을 오리전문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이곳은 작동산과 지양산이 어우러진 전원마을로 약 12곳의 오리전문 음식점은 물론, 닭백숙, 보리밥, 스파게티, 한정식, 커피숍 등 모두 20여 개의 먹거리촌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1년 이곳을 오리음식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까치울 먹거리촌 상인회는 음식도 먹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도록 시골길과 꽃밭, 꽃길을 조성해 마을을 가꾸고 매월 음악회를 열어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위해 오정구는 나트륨 측정기를 배부해 저염식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를 위해 포장용기를 준비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오정구 작동 음식문화특화거리 박용섭 상인회회장은 “까치울 먹거리촌은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음식점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 내일신문 [2014. 05. 09]

### AI시대 이후 종오리 부족... 'F1오리' 대거 입식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종오리 부족이 예상되자 일부 종오리 농장에서 육용오리 등을 이용한 일대잡종인 이른바 ‘F1오리’를 대거 입식, 여기에서 낳은 알로 병아리를 부화해 판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육용오리 농가들이 이 병아리를 사육할 경우 정식 종오리에서 생산된 것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AI 파동으로 전체 종오리의 48.3%(5월1일 기준) 정도가 살처분돼 마릿수가 크게 감소하자 일부 종오리 농장에서 F1오리를 대거 입식하고 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2011년 AI가 종식됐을 때도 F1오리가 종오리로 대체된 비율이 전체의 30%나 됐다”며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AI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F1오리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질병에 취약하고 고기 품질도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F1오리를 통해 생산한 병아리를 대거 입식할 경우 오리 사육마릿수가 급격히 늘어 수급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봉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무분별한 입식으로 오리 사육 마릿수가 증가할 경우 산지가격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보다 24% 정도 더 떨어져 결국 농가소득이 줄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6월 산지가격을 5월 1일보다 1500원 정도 낮은 마리당 7500~8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오리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데도 일부 종오리 농가들이 F1오리를 종오리로 사용하는 것은 생산비가 덜 들기 때문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정식 종오리 가격은 한마리당 9000원 정도인 반면 F1오리는 그 10분의 1 수준

인 9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싼 가격에 현혹된 일부 종오리 농장들이 농가가 피해를 볼 줄 알면서도 F1오리를 종오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F1오리를 종오리로 사용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종오리업 허가취소 등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농민신문 [2014. 05. 12]

책 TF팀 측은 “자극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사들도 가금산업의 안정화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5. 12]

**“자극보도 자제…  
가금산업 안정화 도움을”  
방역대책 TF팀, 소비자 불안조성 보도  
자제 요청**

양계관련 단체들이 AI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가 피해를 확산하는 원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농협중앙회로 구성된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은 지난 5월 7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보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발생한 이후 3개월간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온 AI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극심한 소비침체로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북한 등에서 AI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가 없었으며, 소비자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가금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

**축과원, AI 청정지역 강원도로 이전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가금연구단지의 이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수원 축산생명환경부와 천안 축산자원개발부,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토종닭과 토종오리, 바이오 신약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닭 등 약 1만9천여 마리의 가금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I가 발생하자 지난 2월말 추가로 제3의 장소인 대관령에 중복보존을 완료했었다. 하지만 가금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던 천안의 축산자원개발부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AI에 안전한 대관령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남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보유한 순계의 알을 대관령에 위치한 한우시험장에서 부화해 백신 접종 후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금연구단지의 이전을 위해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가금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 등에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해야 하며, 지자체의 환경능력평가도 거쳐야 한다. 중요한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닭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측은 최대한 빨리 가금연구단지의 이전을 확정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만

약 이전이 늦어질 경우 위탁사육 등으로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한우시험장에서 부화한 닭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AI는 전염성이 강해 천안이나 남원 등 가금류를 보유한 지역에서 발병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다”며 “중복보존으로 닭의 멸실을 막기 위해 가금연구단지를 상대적으로 AI 청정지역인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확정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으며, 가금연구단지를 이전하는 것인지 추가로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5. 12]

**“국내시장 경쟁력 키우자”  
육계, 계열화사업 정비 우선  
정부 FTA 가금대책 토론회  
무슨 말 오겠나**

최근 축산 강대국들과 잇따라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축산업계를 긴장에 몰아넣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국익을 위한 FTA 체결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농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9일 안성팜랜드에서 양계관련 단체들과 함께 ‘FTA 관련 가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축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키워 수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것

이 과제」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진행됐으며, 육계·산란계·오리 분야로 나누어 그 동안 각 업계에서 갖고 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분과별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육계 토론회

육계시장의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현재 미국과 브라질산이 주축을 이루는 수입닭고기 시장의 특성상 더 큰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계열화 사업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계계열화 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농가는 회사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사육 회전수가 줄고 사육비가 깎이는 문제가 있으며, 회사도 최종산물에 대해 가공을 거듭할수록 마진이 줄어들고 있어 소비침체에 의한 손실이 크다고 토론했다. 이에 농가와 회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계열화사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계의 경우 시설, 백신 등의 검사를 확실히 해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토종닭의 경우 소규모도계장과 거점도계장의 건립으로 도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란계 토론회

현재 일부 가공품을 제외한 99%의 물량을 내수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는 계란의 경우도 FTA에 의한 피해보다는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집하장 건립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각 단체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양계협회는 “현재 계란 유통구조는 유통인

과 농가의 협의에 의해 농가 수취가격이 결정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집하장을 충분히 활용한 집하장이 있어야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고 일일이 여러군데 농장을 방문해야 하는 유통인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계란유통협회 측은 “집하장을 건립해 운영하면 결국 또 하나의 유통구조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오리 토론회

오리업계는 중국과의 FTA가 오리산업을 위기에 빠트릴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내산 오리고기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입육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오리의 수출은 털과 부산물만 가능할 뿐, 고기의 경우 수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FTA를 체결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국내산 오리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장의 시설개선과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오리협회 측은 “농가도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설정비를 위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무허가 상태인 경우는 시설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시설정비 없이는 허가도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5. 13]

## [올해 AI 계속 발생하는 두 가지 이유] 숙주 속 바이러스 생존기간 더 길어져

올해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이전 바이러스에 비해 좀 더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발생한 AI가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5월 20일 “닭의 경우 예년에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 지나면 죽었는데 올해는 4일 반나절 정도 걸렸다”며 “바이러스가 숙주와 공생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병원성(독성)은 좀 떨어졌다”고 밝혔다.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하면 숙주를 죽이게 돼 자신의 생존에도 불리해 독성을 약화시키면서 숙주와 공생하는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올해 한국에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이런 유형은 처음 발견됐다. 바이러스의 개체 번식력도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 부장은 “바이러스 배출량도 지금까지 발견된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배출량이 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AI 특징 중 하나는 닭보다 오리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오리의 치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장은 “처음엔 폐사율이 30% 정도였는데 점차 좀 적게 죽었다”며 “오리의 경우 감염돼도 잘 죽지 않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퍼트리니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가가 방역원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도 전염병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AI에 감염된 농가 중 40%는 장화갈아신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화갈아신기는 농장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농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기술로 방역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다. AI 바이러스는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규명되기 때문이다. 주 부장은 “최근 발생한 전남 강진의 한 농가도 시설은 현대화 돼 있었지만 장화갈아신기가 제대로 안 된 게 드러났다”며 “100개 넘는 축사를 이동할 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올해 AI로 518개 농장에서 기르던 닭·오리 등 가금류 1373만5000수를 매몰처분했다.

▶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2014. 05. 20]

### 담양 종오리 농장서 AI 항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 전남 담양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종식을 위해 5월 13~16일 전국 55개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장 1곳에서만 AI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양의 종오리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항원(바이러스)은 검출되지 않았고 항체만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동물의 체내에 침투하면 면역계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인 항체를 생성하는데 항체만 검출됐다는 것은 해당 개체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나 이를 이겨냈다는 의미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아직 바이러스가 존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약 2천4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이

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AI에 오염된 농장이 확인되면 발병농장 반경 500m 이내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전염성이 없는 항체만 발견돼 해당 농장의 가금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살처분으로 AI 종식 선언이 늦춰지진 않을 전망이다. AI 표준조직절차(SOP)에 따르면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했을 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AI 종식선언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양 종오리 농가에서는 전염성이 있는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살처분은 ‘마지막 살처분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지막 살처분일은 지난 8일 신고가 들어온 공주 산란계 농장의 살처분이 끝날 날”이라며 “앞으로 추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20일 사이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4. 05. 18]

### 국립환경과학원, AI 예찰 번역서 배포 나서

조류인플루엔자(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업무 방법을 소개한 국제 표준 안내서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을 번역한 한글 안내서의 배포에 나섰다. 이 안내서는 야생조류의 포획, 부검, 질병진단, 사체폐기 등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야생조류의 AI 예찰에 필요한 표본 수집

방법과 조류의 질병을 조사할 때의 적절한 표본 운반 방법, 동물 취급 요령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또한 야생조류 AI의 발병률과 치사율의 조사, 야생조류의 생체와 사체의 표본 수집에 대한 안전한 처리 등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조류 AI 예찰업무 종사자의 개인 안전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서재화 연구관은 “이번 국제 표준 안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관련부처의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 조사와 분석 업무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의 수의과대학,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YTN사이언스 [2014. 05. 18]

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산업은 해당 분야의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이는 식품 안전과 연관된 농축수산업계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종종 일부 업체들의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불량 식품 등이 언론의 전파를 타면, 관련 업계는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는다. 발등에 불붙어 소비자들에게 아무리 안전과 위생을 강조하며 소비홍보를 해도 한번 돌아선 소비자들의 불신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착한 소비 캠페인은 우리 축산업계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생산자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착한 생산’, ‘착한 가공·유통’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착한 소비는 구호를 외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과 가족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진짜 ‘착한’ 마음가짐으로 정성껏 생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소비자에게 그 ‘착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고, 착한 소비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 농수축산신문 [2014. 05. 28]

## 〈착한소비 500자 릴레이발언대〉 13.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오리협회) 회장



최근 선박, 지하철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온 국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해